

마을공동체미디어 생산자의 미디어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제주지역 공동체미디어의 생산과 과제,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정용복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

본 연구는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자들이 생산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치를 조망함으로써 마을 공동체미디어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자 12명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생성과 생산과정, 이 과정 속에 투영되는 특정한 가치, 이들의 역할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주목했다. 분석 결과, 첫째로 제주 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 생성에는 원주민이 아닌 이주민이 중심이 됐고, 지극히 개인적인 ‘재미’와 ‘열정’, ‘보람’ 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마을공동체미디어에 접근하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 완전한 개방체로서 존재하고 있었으며, 미디어 콘텐츠는 마을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와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은 마을 어르신들의 숨은 이야기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생산과정의 특징으로는 수평적 소통이 이뤄지며, 공동회이라는 형식을 거치지만 미디어 참여자 개인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둘째,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자들이 생산과정에 적용하는 가치들을 살펴본 결과, 자발적인 참여에 따른 ‘소통의 연결고리’와 ‘소통의 확산체’로서 기능주의적 면에서 소통의 활성화를 통한 마을공동체의 복원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과제와 발전방안에 대해 살펴본 결과,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마을공동체미디어 공간 확보, 방송장비 부족과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미디어를 위해 자치단체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은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KEYWORDS 마을공동체, 공동체미디어, 생산자 연구, 마을공동체미디어

* 본 연구는 2016년 11월 25일 열린 한국언론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공동체의 발명, 운동의 재발명’ 기획세션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완한 것이다.

** cyk1997@hanmail.net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에서는 도시로의 인구 이동으로 인해 인구가 유출되면서 마을공동체가 해체되고, 심각한 고령화로 농촌 활력이 저하되어 공동체의 유지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전락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 사회는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마을공동체가 심각한 훼손이 돼 가면서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오완석, 2013). 그런데 제주지역은 이주 열풍에 따른 인구증가로 지역사회의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2010년 이후 이주가 급증하기 시작한 제주는 도시 확대, 부동산 급등 및 교통량 증가, 토박이와 이주민의 갈등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김민영·최현, 2015). 어느 농촌지역처럼 원주민의 도시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빈번한 가운데 농촌지역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만, 반면에 제주 이주 인구의 증가에 따른 농촌 유입으로 마을공동체에서 새로운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제주도내 이주민은 2008년 7,026명, 2009년 7,554명, 2010년 8,955명, 2011년 11,284명, 2012년 14,06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제주특별자치도, 2014), 2015년 한해 이주민은 38,544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통계청, 2016). 이들은 주로 농촌지역을 새 삶을 위한 터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곳은 이주민과 정착민, 마을 토박이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민의 급증으로 인해 비교적 크지 않은 마을공동체에서 주민 상호간에 호혜적 관계가 단절되고, 마을공동체의 해체현상에 직면해 있다. 마을공동체의 복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토대가 된다. 즉 마을공동체 복원은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현안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위해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생각을 공유하고, 합의된 목소리를 내는 공론장(public sphere)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적 특성들을 배양하며, 지역 고유의 특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원칙의 정립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전대욱·박승규·최인수, 2012). 따라서 공동체 복원의 의미는 지역민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공동체의 가치와 비전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소통과 관계의 확장이며, 실천적 행위를 통한 행복공동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마을공동체의 변화에 발맞춰 제주지역은 마을공동체 미디어가 읍·면 지역에 들어설 준비를 마치고, 2015년 1곳, 2016년 3곳이 개국했다. 2017년에는 제주시 원도심이나 읍·면 지역에 3~4개의 마을공동체미디어가 더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는 원래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돕기 위한 수단이며 인간이 가진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도구로 인식된다. 이 개념에서 더 나아가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마을공동체

의 새로운 형성과 시민에 의한 미디어 생산과 수용이라는 시민미디어가 결합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이동연, 2014).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미디어 접근권을 주장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미디어에 참여하는 제작자와 소유자가 돼가고 있다. 게다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6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로 마을공동체미디어 구축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 이주민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확산과 활성화는 지역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

이처럼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는 궁극적으로 마을공동체의 건강한 복원과 공동체의 일상적 기록과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확장을 실현하는 수단이자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마을주민들의 문제의식과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동체를 구현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소통하며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에 기여한다. 특히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지역민 개개인의 미디어를 통한 표현과 소통은 물론, 지역의 여러 현안을 미디어를 통해 이슈화하고 함께 운동하며 지역의 크고 작은 변화를 일구어가는 데에 독특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김희영, 2014a). 공동체미디어가 대안미디어로서 국가와 시장에 대해 부정적 관계로 정의되고 있지만(Rodriguez, 2001), 주류미디어가 정부 취재원을 선호하는 구조적 경향으로 사회 엘리트들을 위한 콘텐츠들이 생산되는 데에 반해(McNair, 1998), 권력과 자본이 소유하는 주류미디어 중심의 한국적 미디어 구조에 미디어 생태계를 다채롭게 하는 방식(김희영, 2014b)이 되는 등 공동체미디어가 이러한 이질적인 노력을 형성하고 알리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Tacchi, Slater, & Lewis, 2003). 또한 마을공동체 사람들의 목소리가 됨으로써 이들 간의 연결과 유대에 영향을 주며, 지역민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생산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해준다. 아울러 마을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해 노력하며, 일상적 대화를 연장해 주는 미시적 공론장을 통한 미디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역할과 기능을 한다(Wasko & Mosco, 1992).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국내의 학술적 연구는 최근 들어 비교적 많이 수행돼 왔다. 서울시의 특정 마을 단위를 범주로 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소통 행위나 실천사례 연구(강진숙·소유석, 2016; 강진숙·이은비, 2013, 2014; 반명진·김영찬, 2016; 장시연·채영길, 2016; 채영길·김용찬·백영민·김예란·김유정, 2016; 홍숙영, 2015)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체라디오의 운영구조나 정책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한 연구가 있다(김은규·최성은, 2013). 또한 공동체라디오의 외적 환경과 조직적 맥락에 대한 국가간 비교나 미국의 공동체라디오 사례를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주고자 시도한 연구가 있다

(한선·이오현, 2008a, 2008b). 따라서 학술적 연구 대상으로서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 연구는 지역성(locality)에 기반을 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지역성은 일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적 정체성을 의미하는바 한 지역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하는 본 연구처럼 한국사회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에 관한 다양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는 최근에 제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미디어가 궁극적으로 마을공동체 복원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했다. 따라서 제주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자들의 질적 심층인터뷰와 문헌자료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 갖는 중요성과 그 현황 및 특성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설립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지, 생산과정에 적용하는 특정한 가치는 어떠한지, 내부 제작과정에서의 소통행위와 지역민 참여와 확대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들이 지향하는 실천적인 활동 내용은 무엇인지, 마을공동체미디어가 마을공동체 복원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위한 과제와 발전방안,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지가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 된다.

2. 이론적 배경

1) 마을공동체와 미디어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는 합의된 개념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목적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변혜선, 2016). 마을공동체의 개념 정의에 앞서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개별적 이해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마을은 사람들이 자전거로 다닐 수 있는 범위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알맞은 인간관계의 폭과 밀도가 보장되는 생활공간으로서 주민들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범주를 의미한다(이주훈, 2012). 마을은 또한 일정한 공간적 범위 안에 주거단지를 이루며 생산과 소비, 전통과 문화를 공유하며 관습과 규율에 의해 통제되는 지역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이희환, 2016). 즉 마을은 유사한 정주환경과 문화적 가치 및 규범 등을 공유하며 생활을 이어가는 지역공동체로 문화와 전통이 있어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오완석, 2013).

공동체는 일정한 공간 또는 마을이나 도시지역이라고 불리는 사회적이며 지역적인 조직체 단위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됐으며(Poplin, 1979), 미국 사회학 문헌에서 공동체

의 개념 정의를 검토한 결과, 집단, 사회적 책임, 지리적 장소, 자의식, 개인들의 전체적 태도, 공통적인 생활양식, 공동의 목표, 지역의 자족성 등 94개의 하위 개념들이 도출됐고, 이 중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정의를 종합해 공동체를 지리적 영역(territory), 공동의 유대감(common ties), 지속적 상호작용(consistent interaction)의 세 가지 기본 구성요소의 결합체로 이뤄진다고 봤다(Hillery, 1955). 이러한 의미들을 종합하여, 맥밀란과 차비스(McMillan & Chavis, 1986)는 공동체 개념에 지리적(geographic), 지역적(territorial) 특성과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관계적인(relational) 개념을 포함했다. 공동체는 혈연이나 지연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닫힌 공동체와 공동의 관심사와 목표, 이해를 가지고 구성된 근대적 열린 공동체인 사회나 결사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병춘·김석찬, 2012). 서울시의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마을’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마을공동체’는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서울특별시, 2012). 마을과 공동체, 이 둘을 합친 마을공동체의 개념적 정의가 서로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는 지속적 상호작용에 따라 주민간의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한정된 공간적 범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사람들은 가정을 꾸미고 생계를 유지하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된다(김구, 2016).

마을공동체가 주목을 받는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지역문제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데,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요구된다(박병춘, 2012). 또한 우리나라는 양극화와 빈부 격차, 증폭되는 사회적 갈등 및 지역민의 삶의 질 악화 등 기존의 국가와 시장의 역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가 있다(박병춘·최현석, 2012). 이러한 이유로 마을공동체가 시민 참여와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 문제로 발전시켜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이 공동체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문석진, 2013). 최근 서울시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운동 역시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소속감, 연대의식, 그리고 상호이해를 강화함으로써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채영길 등, 2016). 그런 점에서 공동체의 기본은 자발적 참여와 호혜성에 있다. 자발적 참여와 호혜성은 개인과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줄 수 있으나, 이에는 책임이 따른다(김태영, 2012). 마을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진정한 공동체가

구성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마을에 공동체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문석진, 2013).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중요한 한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 의지와 참여 속에 마을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우영, 2013). 이러한 의미를 더 확장한다면 마을 단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주민자치 공동체의 실천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재완, 2014). 그런 점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이러한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개념을 내포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엄밀히 말해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미디어’, ‘대안미디어’, ‘시민미디어’로 불리는 공동체미디어(Carpentier, 2007; Rodriguez, 2001)의 하부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리적 범주를 더 강조한 공동체 정의를 포함함으로써 마을공동체미디어의 개념을 규정지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미디어의 구성과 성장은 이웃의 관계망 형성과 그 속의 소통을 대표하는 매개물로서, 마을에서 생각을 같이 하는 주민이 모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디어를 접하고, 이러한 미디어 경험이 공동체의 주요 활동 주제나 목적과 만나면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구성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다(김희영, 2014b). 또한 본래의 공동체 속성을 잃고 있는 마을의 원형을 복원하고, 주민의 생활상과 환경에 대한 기억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도록 마을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구성원의 소속감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소멸이 가져온 폐해를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향한다(손동유·이경준, 2013). 특히 이러한 활동이 낮은 목소리를 통해 마을의 변화를 이루게 한다는 커뮤니케이션 권리(the right to communicate)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공동체의 유지와 문화 향유를 위해 소수자가 스스로 매체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제작해 이슈를 공유하며, 담론을 구성하고, 전파할 수 있는 권리이다(정의철, 2015).

2) 공동체미디어의 특성

공동체가 지리적 영역, 공동의 유대감, 지속적 상호작용을 큰 틀로 하는 개념에 비춰, 공동체미디어는 이러한 공동체적 요소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며 공동체 사람들의 연결과 확장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미디어로 이해할 수 있다. 스티브(Steve, 2011)는 공동체미디어에 대해 미디어 생태계의 다원주의를 위한 핵심요소로서, 공공미디어와 상업미디어의 대안미디어로 존재하는 만큼 시민참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표 1. 공동체미디어의 특성

| 공동체미디어의 특성 | 의미 |
|------------|---|
| 비영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님 • 비영리적 조직에 의한 운영과 비영리적 활동 |
| 공동체 소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한 소유와 통제 • 완전한 액세스(Access)와 참여(Participation) |
| 사회적 서비스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의 요구와 이익 반영 • 공동체의 변화 추구 |

출처: 최성은 (2010). <국가규제와 공공지원이 공동체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1쪽에서 인용.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있다고 했으며, 하울리(Howley, 2005)는 표현의 자유와 참여적 민주주의를 위한 공동체 관계 강화와 연대를 위한 미디어로 제시하고 있다. 세르베스(Servaes, 1999)는 공동체미디어를 제3의 목소리로 간주하며, 독립적인 존재로서 시민사회의 일부분으로 명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상업적 이익이 오랫동안 미디어 시스템을 지배해온 국가에서는 공동체미디어가 이익 중심의 미디어 산업에 대한 비상업적인 대안으로 작용하며(Halleck, 2002), 국영언론이 보편적인 국가에서 공동체미디어는 억압적인 정권과 언론의 선전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Ibrahim, 2000; O'Connor, 1990). 또한 공동체미디어는 속의 민주주의와 공공이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디어로 인정받을 수 있을 때 그 기능이 가장 확대된다고 여기고 있다(Buckley, Duer, Mendel, & O'Siochru, 2008). 공동체미디어의 이러한 다차원적인 특성을 <표 1> 처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공동체미디어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미디어가 아닌 비영리적(non-profit)이라는 점과, 둘째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미디어의 제작과 관리, 일상적 운영 등 전반에 걸쳐 참여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제도적 기반을 갖는 공동체 소유라는 점, 셋째는 공동체가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발언의 기회를 획득함으로써 공동체의 요구와 이익을 반영하며, 공동체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최성은, 2010).

공동체미디어는 그 개념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관계와 소통의 복원을 통해 마을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참여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장시연·채영길, 2016). 시민의 미디어 접근과 참여를 위한 실천들은 다양한 운동과 결합하며 소외계층을 포함한 시민의 미디어 참여를 강조하기도 하고, 이를 위한 사회와 미디어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기도 하며, 미디어를 통한 공동체의 소통을 강조하기도 한다(김

희영, 2014a). 공동체미디어 마포 FM에 대한 반명진과 김영찬(2016)의 선행연구에서 공동체적 삶과 관련하여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문화적 실천을 통해 지역적 문제의 해결 그리고 지역공동체 문화의 복원과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재구성을 모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강진숙과 이은비(2014)의 연구에서도 서울마을미디어 내에서 공동체미디어들이 자발적으로 소통, 연대하여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모습들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상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연구들은 모두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동체를 시장과 정부 실패를 극복하고 지역 간 발전격차를 줄이는 등 지역 내 각종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이상적 체제의 한 형태로 간주하는 정책기조를 갖고 있다(최지민·황선영·김순은, 2016). 이러한 시각에서 서울시는 2012년부터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동체미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마을미디어 공동체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에 공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공적 지원은 공동체미디어의 안정적 경제기반을 마련해줄 뿐만 아니라 비영리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최성은, 2010).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30여개의 마을공동체미디어들이 마을 단위에서 라디오, TV, 신문으로 태동하고 활동하도록 기여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즉 서울시의 정책기조와 그에 따른 예산지원이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에 주효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연구모델 구축이 부족하며(Jankowski, 2003), 공동체미디어 개념 자체가 이론이나 전통적 경험 측면에서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입증된다(Carpentier, Lie, & Servaes, 2003)는 선행연구의 지적처럼, 본 연구에서는 생산자, 콘텐츠, 플랫폼 등으로 공동체미디어의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디어 생산자 연구는 언론영역에서 발현되는 제도적인 구조화의 효과를 특정한 장르의 주요 양식들이나 문화적인 텍스트를 생산하는 전문가집단의 노동과 관행, 그리고 이들이 표명하는 가치의 체계와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방식의 확장된 탐구와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이기형·황경아, 2016). 공동체미디어는 신분과 세대에 상관없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여기에 참여하는 생산자들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아마추어리즘과 조직과 배포의 비체계성을 지닌 비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지식에 근거한 사회적 책임감과 이를 통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공동체미디어 참여자들에게 전문직주의를 요구한다면 공동체미디어의 개념 정의와는 상충된다. 공동체미디어는 주류미디어에서 소외된 목소리를 발견하고 발굴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발언하게 해야 하며, 그들을 공동체미디어의 주요한 주체로 세워야 한다(이주훈, 2012). 자발적인 미디어 활동

이 마을 안에서 자리를 잡고 지속이 되면, 그 활동 자체가 원동력이 되어 다시 새로운 마을 주민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며, 마을의 미디어 전문가가 되어 마을주민들에게 미디어를 만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김희영, 2012).

그동안 공동체미디어는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의 어젠다를 세우고, 양성평등 구현 및 성적소수자와 장애인, 이주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했다(홍숙영, 2015).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대표적인 콘텐츠를 소개하자면, 소도리 네트워크는 제주지역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일생을 통해 역사와 시대를 재조명해 보고자 생애 구술사 <라디오자서전>을 방송하고 있다. 외도마을방송 라이브 소울은 외도마을의 주요 관심사를 다루는 '우리 동네 SNS'와 언론에 비취진 마을 관련 기사나 마을의 주요 소식들을 알리는 '동네방네 소도리'라는 두 코너로 구성된 <외도살이 이야기>가 대표적인 콘텐츠다. 구좌마을미디어 와들랑의 대표적인 방송프로그램 <몽생이수다>는 구좌읍에서 나고 자란 50세를 넘긴 두 몽생이(망아지의 제주어)가 구좌마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구수한 입담과 함께 뒷얘기를 담아 풀어내는 방송이다. 마을방송국 제주살래는 <신대장의 다락(多樂)방수다>라는 방송명으로 신대장의 제주 삶 속에서 느끼는 다양하고 즐거운 이야기와 만나고 싶은 사람들, 제주의 마을활동, 마을사람에게 듣는 마을이야기 등의 콘텐츠로 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마을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와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은 마을의 숨은 역사를 주요한 콘텐츠로 삼고 있다. 서울시 공동체미디어인 동작FM의 프로그램 <하이파이브 1040>은 중년 여성DJ를 중심으로 매회 청소년 게스트를 초청하여 학업, 연애, 취미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청소년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장으로서 기능하며, <훈수터(훈남들의 수다 놀이터)>는 솔자리, 스펙, 직업선택 등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강진석·소유석, 2016). 관악FM의 일일 다문화 프로그램인 <굿모닝 세상의 아줌마들>은 서울시 관악구 선주민들과의 소통과 정보 교류, 이주민 여성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돕기 위해 2011년부터 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안진·채영길, 2015). 특히 마을주민들의 모든 일상적 행위들과 역사적 증언 및 기록들 모두 콘텐츠가 될 수 있는 만큼 마을공동체의 정체성과 소통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공동체미디어의 플랫폼은 소출력 FM, 신문, 잡지, 영상뉴스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디어기술 발전을 통해 웹진, UCC, 팟캐스트와 같은 디지털미디어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강진숙·이은비, 2014). 2000년도 방송법 개정 이후,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나누는 방송을 위해 7개의 공동체라디오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주파수를 얻어 방

송을 시작했고, 시민방송 RTV가 개국해 시민들의 콘텐츠를 위성을 통해 송출하기도 했다(김희영, 2012). 공동체미디어는 국가적 또는 제도적 상황에 기반을 두어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인쇄매체 등 다양한 미디어 형태로 현실화가 가능한데, 덴마크에서는 지역 텔레비전(local TV), 미국에서는 소출력라디오(LPFM)와 액세스TV(access TV), 영국과 호주에서는 커뮤니티 라디오(community radio)가 공동체미디어로 운영되고 있다(김은규·최성은, 2013). 대부분의 공동체미디어는 비교적 접근이 쉽고, 제작이 용이한 팟캐스트방송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업로드 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방송은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입장벽을 높이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생성과 생산과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자들이 생산과정에 적용하는 가치관과 행위, 실천과 의미화 과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모색해보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들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정했다.

연구문제 1.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생성 및 생산과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자들이 생산과정에 적용하는 특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과제와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3. 연구방법

1)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 현황

서울시는 공동체회복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부로서, 2012년 국내 최초로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중간지원조직을 신설함으로써 도시 내 공동체 육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됐다(최지민·황선영·김순은, 2016).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6월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 시설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영상촬영과 편집장비 등을 구축하는 데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참여자는 장비구축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 2016년 9월 27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밝힌 조례 제정이유로는 “새롭게 형성되는 제주 마을공동체의 민주적인 주민소통과 공동체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콘텐츠 개발 및 육성과 미디어분야 기초 인력양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미디어를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고 소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온라인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16). 이 지원 조례안 제5조에 도지사는 지원 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 방안,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마을공동체미디어 장비구축과 콘텐츠제작, 운영인력 양성과 재교육, 마을공동체미디어 교류협력 등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근거를 두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16). 이러한 마을공동체미디어 조례안은 공동체미디어의 목적 및 마을주민의 주체적인 생산 및 배포, 공동체 소유, 미디어 다양성 등의 공동체미디어의 이론적 함의를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미디어 4곳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표 2〉 참조). 제주지역에는 현재 10여 개 이상의 개인미디어 팟캐스트방송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제주지역의 시사·정치 이슈나 종교, 관광객·이주민을 위한 콘텐츠를 담고 있어 공동체미디어의 특성인 비영리, 공동체 소유,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표 2.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 현황

| 운영주체 | 이름 | 미디어유형 | 설립(개시) | 콘텐츠(횟수) | 참여인원 | 활동지역 |
|----------------|---------------|------------------------|-----------------------|--|------|------|
| 제주주민자치연대 | 소도리 네트워크 | • 팟캐스트 • 페이스북 라이브방송 | 2015. 4 (2016. 5) | 생애구술 인터뷰(10회) 색깔 있는 인터뷰(8회) 김대호가 만난 사람(4회) | 4명 | 제주시 |
| 외도동마을미디어 추진위원회 | 외도마을방송 라이브 소울 | • 팟캐스트 | 2015. 7 (2016. 2) | 외도살이 이야기(8회) 삼촌다방(1회) 엄마의 생각(4회) | 10명 | 외도동 |
| 제주마을소도리문화연구소 | 구좌마을미디어 와들랑 | • 신문 • 팟캐스트 | 2015. 12 (2016. 8) | 몽생이수다(2회) 구좌문화방송(2회) 파란10대들의 이야기(2회) | 8명 | 구좌읍 |
| 서귀포귀농귀촌협동기업 | 마을방송국 제주살래 | • 팟캐스트 | 2015. 3 (2015. 12) | 신대장의 다락방수다(5회) 청년제주워킹홀리데이(7회) 한초이의 뮤직부띠끄(7회) | 5명 | 남원읍 |

맥락에 맞는 4개 미디어를 연구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로 제주주민자치연대의 '소도리 네트워크', 외도동마을미디어 추진위원회의 '외도마을방송 라이브 소울', 제주마을소도리문화연구소의 '구좌마을미디어 와들랑', 서귀포귀농귀촌협동기업의 '제주마을방송국 제주살래'는 공통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공동체미디어 설립을 준비했으며, '제주마을방송국 제주살래'는 2015년 12월, 나머지 3곳은 2016년부터 팟캐스트를 통해 방송하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의 소도리 네트워크는 2015년 4월 개인미디어 활동가와 함께 개국 준비를 마치고 2016년 5월 첫 팟캐스트방송을 시작했다. 소도리는 '이야기하다, 소문내다'를 뜻하는 제주어다. 외도동마을미디어 추진위원회의 외도마을방송 라이브 소울은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방송'이란 기치 아래 2015년 7월 마을공동체미디어 사업가 능성 검토를 마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마을방송 준비를 해나갔다. 소울은 '소통의 울타리'의 줄임말이다. 2015년 10월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자를 공개모집하고, 11월에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영상과 라디오제작교육을 받았다. 현재는 팟캐스트방송에 주력하고 있지만, 2017년 하반기에는 인터넷 영상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마을소도리문화연구소의 구좌마을미디어 와들랑은 제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신문(2016년 10월 20일 창간)과 팟캐스트방송(2016년 8월 21일) 매체를 갖고 있는 마을공동체미디어다. 와들랑은 '시끌벅적한 모습'을 나타내는 제주어다. 이들은 2016년 상반기에 마을방송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민들을 공개모집하여 미디어교육을 실시한 후 2016년 8월 첫 팟캐스트방송을 시작했다. 서귀포귀농귀촌협동기업의 마을방송국 제주살래는 2015년 12월 지역민과 정착민이 함께 모여 남원읍 청사 맞은편에 위치한 마을문화공간에서 마을방송국 제주살래를 개국했다. 마을방송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PD, 진행자, 작가, 운영자 등의 역할을 지역민들에게 교육한 후 팟캐스트를 통해 월 2회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2)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연구대상은 <표 3>과 같이 제주지역의 마을공동체미디어라 할 수 있는 제주주민자치연대의 소도리 네트워크 2명, 외도동마을미디어 추진위원회의 외도마을방송 라이브 소울 4명, 제주마을소도리문화연구소의 구좌마을미디어 와들랑 4명, 서귀포귀농귀촌협동기업의 마을방송국 제주살래 2명 등 모두 12명이다. 이들 연구 참여자는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

표 3. 심층인터뷰 대상자

| 구분 | 연령 | 성별 | 출신지역 | 현 이주연도 | 미디어 | 직업 |
|----|----|----|-------|--------|---------------|-----------|
| A | 49 | 남 | 제주시 | 원주민 | 소소리 네트워크 | 개인사업 |
| B | 46 | 여 | 경남 김해 | 1995년 | 소소리 네트워크 | 시민단체 활동가 |
| C | 57 | 남 | 서귀포시 | 2001년 | 외도마을방송 라이브 소울 | 농업 |
| D | 45 | 여 | 서귀포시 | 2008년 | 외도마을방송 라이브 소울 | 주부 |
| E | 49 | 남 | 서귀포시 | 2007년 | 외도마을방송 라이브 소울 | 개인사업 |
| F | 48 | 남 | 제주시 | 원주민 | 외도마을방송 라이브 소울 | 농업 |
| G | 40 | 남 | 강원 춘천 | 2011년 | 구좌마을미디어 와들랑 | 영화감독 |
| H | 36 | 여 | 경북 포항 | 2011년 | 구좌마을미디어 와들랑 | 프리랜서 PD |
| I | 52 | 남 | 서울 | 2014년 | 구좌마을미디어 와들랑 | 민간단체 사무국장 |
| J | 52 | 남 | 구좌읍 | 원주민 | 구좌마을미디어 와들랑 | 농업 |
| K | 46 | 남 | 서울 | 2011년 | 남원마을방송국 제주살래 | 마을기업 대표 |
| L | 45 | 남 | 서울 | 2011년 | 남원마을방송국 제주살래 | 출판업 |

방식으로 질적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실시했다. 마을공동체미디어 경험에 대한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과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설명과 의견을 듣기에 심층인터뷰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심층인터뷰는 수집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사람의 프로파일을 만들어 그 사람의 경험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유의한 경험이며, 인간 행동의 맥락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준다(박재영·강진구, 2016).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마을공동체미디어 대표자들에게 전화와 사전만남으로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뒤 인터뷰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사무실이나 인근 카페에서 이뤄졌으며,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됐다. 인터뷰는 연구 대상자들의 동의하에 전부 녹취했으며, 인터뷰가 끝난 직후 한글문서 형태로 분석 자료를 만들어 연구에 활용했다.

심층인터뷰 질문내용은 반구조화된 인터뷰 방식을 취했다. 반구조화된 질문은 연구 문제와 관련해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했다. 첫째는 해당 미디어의 현황을 질의하는 질문을 비롯해 설립 배경과 운영 주제, 주요 목표 및 활동, 미디어 운영형태 및 공적지원 여부, 제작 참여자들의 의사결정 과정,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공론화 과정과 이슈와 의제 찾기 과정, 둘째는 콘텐츠 구성과 지역민 참여 확대, 이러한 생산과정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한 가치, 셋째는 공동체미디어 운영의 어려운 점, 마을에서의 반응 및 평가, 공동체 복원

과 변화에 대한 기여 정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및 향후 기대 정도에 대한 인식 등이다. 질적 분석 자료는 마을공동체미디어에서 제공한 사업 준비 계획서와 신문/인터넷 기사 등 본 연구에 도움이 되는 언론자료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절차는 우선적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생성 및 생산과정의 특징, 생산과정에 적용하는 특정한 가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과제와 발전방안 등의 연구문제와 관련한 인터뷰 내용의 범주를 구분하고, 검토와 분석을 통해 연구문제에 맞게 새롭게 분류했다. 다음으로, 인터뷰 참여자들의 경험 인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롭게 분류된 내용들 간의 연결을 시도했다.

4. 연구 결과

1)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생성 및 생산과정의 특징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은 ‘마을공동체미디어’라는 생소함에다가 ‘공동체적 삶’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에서 미디어가 어떤 의미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첫 시작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재미와 만족감이었다. “의미도 모르고 실체도 없는 마을미디어라는 일에 도전하고 하나둘 공부하면서”(D), “인생에 있어서 좋은 추억거리고, 마을의 모든 면면들을 기록하고 알리는 일에 대한 보람을 느껴요”(J), “마을미디어 참여를 계기로 좋은 사람들과 뭘 할까를 찾고 있어서 마냥 좋다”(F)는 말처럼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한결같이 ‘좋은 추억거리’, ‘자신감과 성취감을 찾는 계기’, ‘매우 재미있는’ 이라고 표현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언급이다.

신문을 만들 때도, 사람들이 쓴 거 읽을 때도, 어떻게 편집 방향을 정할까 고민할 때도 즐거워요. 내 시간 내서 하는데 재미라도 없으면 이걸 왜 하겠어요. 재미라는 걸 풀어서 이야기 하면 할수록 살고 있는 마을을 알아가는 과정이란 걸 알 수 있죠. (I)

솔직히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도의원 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운 면도 있었지만, 마을미디어를 하면서 그들이 잘 났거나 부럽다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고부터 그분들의 인생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인생도 깊어졌죠. (A)

개인이 마을과 미디어를 만나는 계기는 각기 다를 수 있다. 이때 개인이 느끼는 마을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애착,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내고 싶은 목소리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나와 마을, 미디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시작되고 있었다. 다수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자들은 평소에 미디어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그러한 일들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었던 이주민들이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누군가와 소통하거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마을공동체미디어에서 중심이 되어 출발하고, 마을 원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를 보였다.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자들의 발언을 보면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첫 생성이 지극히 자발적인 개인 참여로 시작되고, 이들과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삼삼 오오 모여 미디어 형태를 띄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마을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소통이 중요해요. 그래서 소통의 채널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죠. 마을에서의 모임, 강연 등도 있는데 미디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각자 살고 있는 마을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이 두꺼워지면 공동체 의식이 살아날 것이라고 보았죠. (I)

대학 졸업하고, 방송에 관심이 많아 방송국 PD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방송에 대한 그리움 정도가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마을미디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졌죠. 작년에 4명이 추진위원회를 꾸린 후 마을미디어 제작단을 모집하고 모두 10명이 제주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영상, 라디오, 사진 교육을 받았어요. 마을미디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마을이 갑자기 이주민들이 늘면서 주민들 사이에 문화적 이질감이 생겨나 이들을 한데 묶어낼 미디어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C)

마을미디어를 시작한 계기는 노인과 관계가 있어요. 바로 나의 아버지부터 시작됐죠. 아버지는 주위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성격이어서 월급을 타도 사람들에게 베푼다고 집에 못 가져올 정도였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가 거추장스러운 사람이 됐죠.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자식 입장에서 무엇을 남겨 드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디어를 통한 구술사 작업을 시작하게 됐고, 다른 어르신들로 확장하니까 마을미디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어요. 마을미디어 활동은 나만의 시대 의식,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A)

연구 참여자의 진술처럼, 제주지역의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의

소통의 필요성을 느껴 시작되었고, 미디어를 소통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으며,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방송’을 기치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협력체계를 만들어온 외도마을방송 라이브 소울의 경험과 문제의식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도마을방송은 제주지역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개념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로 구체적인 실천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즉,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로 형성된 마을주민들이 외도동마을미디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마을공동체미디어 제작단을 공개 모집하고, 이들 모두가 제주영상미디어센터에서 3주간 미디어교육을 받은 후 서울시 마을미디어에서 재교육을 받았다. 이후 마을 내에서 마을미디어 페스티벌을 여는 등 마을공동체미디어 역할의 차원을 확장시키고 있다. 제주의 마을공동체미디어가 대부분 이주민 혹은 문화기획 경험자들이 주도하는 데에 반해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공동체의 연대를 높이는 데에 있어서 외도마을방송은 방송 초보자들로 구성된 주민들이 중요한 힘인데, 외도마을방송의 모델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메시지들을 살펴보았을 때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자들의 의사결정 과정,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의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할 수도 있다. 마을주민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마을의 이슈와 관심사를 서로 소통함으로써 마을사람들을 연결하고 공간적 거리를 좁혀 나갈 수 있다.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또한 대안미디어로서 미디어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권리의 확장을 통해 작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간다. 그런 점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소수에 의해 독점되어 생산이나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확보해 주는 것이 기본 전제일 것이다. 다음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생산과정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회의에서 참여자 개별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준비할 건지를 자유롭게 말해요. 주제나 내용들이 좋다고 결론이 나면 하겠다고 말 한 사람이 기획부터 연출, 진행까지 도맡아 하는 거죠. 누구나 방송에 참여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얘기하고 논의를 거치면 되요. 방송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10분을 이야기 하는 것도 힘들어요. 처음에 몇 번 대본 없이 방송을 진행했는데, 실제 편집해 보니 앞뒤 말이 똑같아서 잘라 내다보니까 방송시간이 채 5분도 안 됐어요. (C)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을까 서로 이야기하다가 좋은 기획이 있으면 방송을 해보자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걸 누가할 것인가, 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회의하게 되죠. 사전에

대본작업해서 녹음하고 편집을 하죠. 인터뷰 방식의 초대 프로그램은 이번 주에 누구를 초대할지를 DJ가 직접 섭외해서 녹음하고 있어요. (H)

방송을 만들 때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를 갖고 있는 주제를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이 있죠. 기존의 방송사는 보도국 예능국 시사국이 있고, 담당 국장이 지시하는 시스템이죠. 프로듀서는 기획하고 DJ나 출연진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고요. 하지만 마을미디어는 DJ가 직접 이러한 과정을 다해야 해요. 그런 만큼 자신의 취향이나 관심사를 기획해야 의욕을 갖고 할 수 있어요. 기존의 미디어는 시청률, 청취율이 높아야 광고를 받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데, 마을미디어의 존재 목적은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라고 생각해요. (K)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기획단계에서 회의라는 형식을 거치지만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자 개인의 관심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연구 참여자 K가 언급한 것처럼 미디어의 생산과 유통, 소비적 측면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생산에 치중된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연구대상인 4개의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이제 1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소수의 참여인원과 열악한 제작현실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생산과정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 참여자들 스스로가 자신이 하고 싶은 콘텐츠를 통해 미디어 참여 구조를 마련하고 있었다. 이들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통해 메시지 생산의 주체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존재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었다. “미디어 형식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제주에서 생애 구술 인터뷰의 필요성을 가지고 마을미디어를 운영한 첫 번째 사례가 되고 싶을 뿐”(A)이라는 의견처럼 기록적 관점에서의 중요성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마을미디어는 다른 무엇보다도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존재”(G)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참여자와 출연자와의 연결과 이에 따른 마을 내 확장으로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시도하려는 운동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미디어 조직과 마을 간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소통하는 것은 그리 원활해 보이지 않았다. 소통의 핵심은 사람과 사람 간의 행위 교환을 위한 인터랙션(interaction)이다. 또 생산된 콘텐츠에 대한 반응과 평가의 피드백(feedback)일 것이다. 다음은 이에 대한 언급이다.

마을 외부인이나 우리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마을미디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모르더라고요. 우리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을미디어를 알리는 과

정이 우선 필요해요. (F)

2011년에 제주도에 왔는데 이주민이든 지역민이든 소통을 하고 싶는데 어려워요. 내가 다
가간다고 해서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다가온다고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죠. 둘
다가 필요한데 마을미디어가 있어서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H)

신문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반응을 몰라요.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홍보했을 때 사람
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구좌읍에 이런 것이 생기는 구나라는 관심이었죠. 앞으로 많은 콘
텐츠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다들 바쁜 사람들이어서 모든 역량이나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다는 게 걱정이 돼요. (G)

인터뷰 결과, 아직 제주지역의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채 1년이 안된 시점에서 마을공
동체미디어의 존재를 모르거나 마을에서의 주민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F, H)의 말처럼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현실적 한계를 토로하기도
하지만, 긍정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고 있지 않았다. 이런 의식은 G의 진술처럼, 마
울공동체미디어가 활성화 됐을 때 마을사람들의 기대를 계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또다른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 마을공동체미디어가 등장해 성장하는 과정은, 결국 마
울에서의 주민소통과 연결이 확장돼 가는 과정이자, 마을의 다양한 소식과 이야기를 모아
내면서 마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나 이슈를 자연스레 마을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가는 공론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김희영, 2014a).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평범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생산
하고 소비하고 나누며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획득해갈 수 있다. 미디어를 매개로 마을사람
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의미부여를 하면서 마을공동체의 역사를 스스로 재생산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임을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네 어르신들의 구술을 책으로 낸 것은 많이 있는데, 음질로 보관하는 건 아직 없어요. 팟
캐스트를 통해 좋은 음질로 보관한다면 한세대 또 몇 세대가 지나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요. 책은 기록자가 의도를 갖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쓰여 있는 가공된 것이지만, 라디오 자
서전은 목소리를 담을 수 있어서 자식들 입장에서 좋은 것 같아요. (A)

우리는 팟캐스트방송 말고도 신문을 만들기도 해요. 신문은 전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다뤄

요. 대부분의 신문은 사건이나 마을소식에 집중돼 있는데, 마을사람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유용성이 있고 관심이 많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 그것이 우리 마을신문이 다른 신문과 구분되는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G)

일반적인 팟캐스트방송은 개인의 관점을 다루지만 우리는 마을미디어로서 다양한 공공의 목적에 맞는 방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어요. 공공성에 부합하면서도 팟캐스트 매력을 담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 점을 많이 고민하죠. (L)

이상의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주류미디어의 접근 방식과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지역 특성에 어울리는 새로운 마을공동체미디어로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었다. 주류미디어에 대한 비판과 인터넷 대안미디어들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체 스스로 자기 얘기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생산 구조가 변모해야 한다(박채은, 2006). 소도리 네트워크는 “생애구술 인터뷰가 충분히 진행된 후에 출판 계획이 있어요. 제주도에 ‘꿈틀’이라는 예비 사회자협동조합의 젊은 친구들이 인물자서전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인터뷰한 내용을 그 단체와 협업해서 자서전을 만들 계획”(B)을, 마을방송국 제주살래는 “우리 마을이 감귤생산지로 유명한 만큼 농촌활동을 배경으로 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K)라는 말처럼 마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소통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통해 마을 문화의 생산자이자 매개자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자들이 생산과정에 적용하는 특정 가치

공동체적 삶의 양식을 복원하려는 노력은 여러 활동에서 지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사업들이 전국 각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가 공동체의 위기나 부재에 기인한 것이다(이명호, 2016). 마을공동체미디어 역시 가장 근본적 기능은 마을공동체의 복원이라 할 수 있다. 인터뷰 참여자들도 표현상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시작한 계기가 바로 마을에서의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A, C, G, K)고 말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복원의 핵심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이에 따른 연계망의 확장, 주민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마을공동체미디어를 매개로 마을주민 스스로 자신의 언어로 마을에 대해 스스로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러한 마을에서의 소통 체계의 복원은 마을공동체

를 새로이 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가치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공동체는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들로서의 주체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활동을 통해서 ‘공동-존재’로서 함께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장소이기 때문이다(이희량, 2012). 이러한 의미에서 공동의 관심사를 교류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생활적 공동체 내에서 함께 공존하는 마을주민들이 미디어에서 드러내고 표현하며 행동하는 일련의 생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내가 지나가다가 만난 어떤 가게 주인과 쉽게 친해지기 힘든데 미디어를 통해 이야기하고 인터뷰하면서 내가 사는 마을에 대한 애착도 생겨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 마을에서 잘 살고 있고, 나는 모든 게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면 마을미디어가 필요 없어요. 내가 즐겁게 사는 데에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하는 것이죠. (I)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나간다면 내 이야기도 신문에 넣어 달라 혹은 라디오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할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미디어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기자가 되고 DJ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싶어요. 우리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알게 되고, 우리 옆집에 이런 사람이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벽을 허물었으면 해요. (H)

마을미디어를 시작한지 얼마 안됐지만, 내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500명의 출연자가 있으면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500명의 목소리에는 가슴 뜨거운 내용을 말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인생 자체가 화제가 될 수도 있죠. (A)

이상의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자들이 마을공동체미디어에 거는 기대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마을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을 것”(C), “앞으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목소리가 쌓이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면 청취자는 늘 것이고, 마을사람들이 귀 기울여 줄 것”(K)이라는 확신과 긍정으로 실천적 노력을 조금만 기울인다면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풀뿌리 미디어로의 발현을 기대하고 있었다.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영역에서 이웃들의 생각이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서로 다른 삶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삶의 이야기들이 소통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마을미디어가 마을의 소통 도구와 정보교류 도구가 돼야 하는 만큼 소통의 중심체

로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이라든지”(E), “포근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주민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마을미디어가 되길 희망해 본다”(F)는 말처럼 이들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자들이 미디어에 부여하는 ‘소통’과 ‘연결’, ‘참여’와 ‘기록’이라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가치를 보여 주고 있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언급이다.

라디오는 2명이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매번 섭외가 어려운데, 이번에 70세 어르신이 게스트로 참여했어요. 70세 분이 말한 내용은 풍성했고 제주어를 쓰니까 더 좋았어요. 내가 몰랐던 마을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제주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점들을 알 수 있었어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성도 하고요. (H)

가치는 있는데 잊혀져가는 것이나, 누가 봐도 소중한데 기억하기 힘든 것들, 드러나지 못한 일들을 찾아내서 기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다만 사람이나 소재를 찾기 힘든데 마을미디어를 하려면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I)

마을신문에 게재되는 기사들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된 사람이 다 써요. 이번 호는 처음이니까 10명 안팎이지만 나중에는 20명, 30명이 작게라도 기사를 직접 쓰는 형식이 됐으면 해요. 마을미디어에서 마을이 중요한 거지 미디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마을공동체 복원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일 뿐이죠. (G)

이상의 인터뷰 결과,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자들은 공동체의 참여와 이를 통한 소통의 활성화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G의 말처럼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단지 이를 매개하기 위한 수단이나 장치 정도로 보았다. 마을공동체미디어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공유와 확산이기도 하다. 생산과정에서 마을사람들, 주위의 사람들과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지역성에 기반을 두어 이러한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자들의 소통을 가로막는 난제가 있다. 바로 제주의 차별적 문화와 제주 방언이다. 제주 사회는 제주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국내외 이주자들에 대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성격을 보이는 역사성을 갖고 있다(황석규, 2009). 사회적 연결망을 의미하는 ‘웬당 문화’는 ‘돌보는 무리’라는 뜻인 권당(眷黨)의 제주어 표기로서, 친척 사이에 갖는 결속감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며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나 조직, 집단의 문화라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황경수, 2015). 연구 참여자 C는 “예전의 제주 마을은 미디어로 소통할 필요가 없는 곳이었죠. 삼촌, 이모로 엮어진 웬당으로 다 연결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마을 할 것 없

이 이주민이 급격히 늘면서 이전의 마을공동체가 깨졌어요. 기존에 살던 마을주민들은 자기들끼리만, 이주민은 이주민끼리만 교류하며 생활하는 형태였죠. 그래서 마을미디어나 마을만들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소통을 필요로 하는 이주민일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진술했다. 또한 제주지역에서 사용하는 제주방언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이다. 연구 참여자 B는 “1995년에 결혼한 후 남편 고향인 제주도에서 3년을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시어머니의 말을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조사 구분이 안 돼서 중국말처럼 들렸죠. 석 달 정도 되니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는데, 같은 나라지만 제주는 언어나 문화적인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라고 말하고 있다. 제주방언은 구조나 의미 등에서 독창적인 가치를 지닌 언어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제주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자들이 이주민이 많아 취재나 인터뷰 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위한 과제와 발전방안

현재 제주지역에는 4개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외에 3~4개 정도의 공동체미디어가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는 2017년 상반기부터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직접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어, 앞으로 제주시 원도십이나 읍·면단위 마을에서 보다 많은 공동체미디어가 만들어지고 확산될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누군가의 일회성의 경험 또는 체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안착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이를 매개로 마을 사람들이 만나고 함께하며 마을에서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어떻게 생성되고,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어떻게 사고하고 접근해야 하는지, 마을공동체미디어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고민들을 들어봤다. 그런 점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남았는지를 짚어봤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기보다 마을미디어 참여자를 늘리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현재 우리 마을미디어의 참여 인원은 5명밖에 없는데, 참여자가 더 많아야 하는 만큼 연말에 ‘나도 마을방송 DJ가 될 수 있다’는 제목으로 미디어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마을미디어를 이해하고 제작 과정을 실습해서 작가, 연출자, 엔지니어가 돼서 직접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교육을 할 거예요. (K)

지금 마을 내에 원주민이 4분의 1이 될까 말까 해요. 그래서 이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는데,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참여해볼까 이러면서 동참할 수 있죠. 마을미

디어가 얼마큼 마을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활동 자체가 마을에 변화를 주는 것이죠. 우리 이야기를 말하는 공간이지만 마을사람들의 전반적인 생활이 묻어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C)

어떤 조직이든 이중성이 있어요. 초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열정과 노력을 다해서 하는 만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칫 초기 멤버들의 사유화 개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노력했는데 노력하지 않은 무임승차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져'라고 거부감을 보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의 역할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축소되고 왜소해져서 다른 참여자 중심으로 운영돼야 마을미디어가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계속 주도권을 가지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장벽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주민참여가 늘어나 이 사람들이 마을미디어의 주류가 돼서 기존 사람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I)

이상의 인터뷰 결과,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의 과제는 주민참여였다. 즉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시급한 과제이자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마을공동체미디어에서 주민참여가 이뤄지는 과정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마을공동체미디어 구상 단계에서 처음부터 그 일원으로 참여하거나 마을공동체미디어 제작단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하는 방안이며, 둘째는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시작된 후 미디어 기획자 또는 진행자로 참여하거나 게스트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완전한 개방체가 되려면 마을공동체미디어는 계획 초기 단계부터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사회적, 문화적 차원의 확장을 이루려면 마을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소식과 이야기를 모아내면서 자연스럽게 마을의 이슈나 과제들을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주민자치 실현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위해서 앞서 제시한 주민참여의 문제만 해결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미디어 관점에서 배포 주기를 지키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와 맞지 않아요. 우리가 배포 주기를 지키려면 전담할 직원이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1년에 3,000만 원 이상 드는데 우리는 그만 한 돈이 없어요. 공적 지원 없이 회원들만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A)

마을미디어 운영을 위한 재정은 모든 사람들의 고민일 거예요. 수익을 도모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광고보다는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해요. 또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F)

제주영상미디어센터에서 방송 장비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방송장비나 시스템 등 인프라가 부족하니 마을미디어를 이 정도 수준에서 더욱 확장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죠. 서울시는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이 잘 이뤄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미디어교육을 받다가 영상을 만들자고 하면서 마을미디어가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주는 미디어교육이 이뤄지는 것조차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C)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지속가능한 형태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을미디어 특성상 재정만 충분하다면 운영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이런 말을 꺼내면 지역에서 우리가 돈벌이 목적이 아니냐는 비난이 두렵긴 해요”(E)라는 말처럼 미디어 참여자 역시 ‘재정’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임을 보여준다. 또 “방송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가능한데, 돈은 그렇지 못해요. 서울시의 마을미디어 육성 조례가 있듯이 제주도가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이 지원돼서 도민들의 삶이 다양한 채널로 알려지는 것이 마을공동체 복원에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K)라는 진술처럼 마을에서 미디어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미디어를 매개로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서울시는 미디어교육과 활동지원, 네트워크와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는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지정해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마을주민들 스스로의 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전문적인 미디어운영을 가능케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마을미디어지원센터-주민-전문가 등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현장 의견수렴과 협력체계 구축이 잘 이뤄져 있다(이주훈, 2015). 연구 참여자 C, F가 언급한 것처럼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공간문제도 중요하다.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자들이 콘텐츠를 생산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고정된 공간이 필요하다. 소도리 네트워크는 개인 사무실 한 공간을 막아 방송 스튜디오를 만들었고, 외도마을방송 라이브 소울 역시 개

인 사무실 공간을 빌려 쓰고 있지만, 조만간 신축되는 마을회관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한다. 구좌마을미디어 외들랑은 구좌읍 세화리사무소 일부 공간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이곳은 참여자들의 회의공간으로 주로 쓰이고, 스튜디오 시설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방송장비를 들고 읍사무소나 마을 카페에서도 방송을 진행한다. 마을방송국 제주살래는 협동조합 사무실에 방송 스튜디오를 설치해 있다.

마을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생각한다면 공적 영역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마을 미디어사업은 어떤 형태든 성과가 이뤄지는데, 공적 영역은 성과물 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다고 봐요. 다만 공적영역이면 세금을 받아가면서 하는 건데 지금처럼 마을공동체미디어가 뿌리내리지 않은 시점에서는 도민들이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A)

중요한건 하드웨어 지원이라고 봐요. 서울 성북구에는 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있어서 누구나 쉽게 방송장비나 스튜디오를 쓸 수 있어요. 제주도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없어요. 인터넷과 팟빵에 올리는 비용 등 최소 1년에 100만 원은 사용하는데, 참여자들이 회비명목으로 내고 있어요. 또 공동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팟빵을 쓰는데 마을미디어만 모아놓은 사이트도 있어야 하고, 관련 어플리케이션도 필요해요. (C)

자치단체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방송 시설이나 장비, 운영비 등의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처음에는 재미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내년, 내후년이 됐을 때 운영이 제대로 될지 모르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기분 좋게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G)

마을보조사업 시스템 간소화 및 지원 절차 개선도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6월에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을 위해 첫 보조금 사업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C씨는 “보조금 사업이 말이 안되는 게 5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이에요. 우리의 경우 광고도 하고 스폰서도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자부담 50%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죠”라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주체적인 노력은 어떠한 실천적 행위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들 각자의 마을공동체 미디어가 갖고 있는 다양한 후속기능을 살펴볼 수 있다.

마을미디어를 준비하고, 방송하면서 축적한 노하우와 교육과정, 자체 개발한 커리큘럼들을 통해 앞으로 미디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이를 마을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세대에게 나눌 계획이죠.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공익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H)

서울시 마을미디어네트워크처럼 제주도 역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제작기술이나 콘텐츠 생산 방법 등을 교류하고 공동 제작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해요. 이를 통해 마을과 마을, 문화와 문화가 교류 됐으면 좋겠어요. (L)

제주의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을 작게 보죠. 사실 서울의 3배 면적에 이르고, 막상 제주에 살아보니 한라산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에 위치한 10개 읍면이 문화나 경제 단위 등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들 10개 읍면에는 마을미디어의 존재 가치가 충분하죠. 마을미디어는 주민들의 소통의 공간, 공동체 복원, 주민들의 시민예술문화의 장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수행할 수 있어요. (K)

이상의 메시지들을 살펴보았을 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는 10개 읍·면지역 별로 생산 주체, 플랫폼, 콘텐츠 등 마을공동체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모델로 만들어지고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미디어의 개별 활동보다는 네트워크를 형성했을 때 더 중요한 기능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에도,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이들 마을공동체미디어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인 '제주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구축해 현장 의견수렴과 협력체계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마을공동체미디어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만들어지는 미디어로 정의된다. 모든 과정이나 결과가 비영리를 추구하는 만큼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확장으로 접근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고 해서 전적으로 이에 의존하는 경쟁력 없는 마을공동체미디어가 돼서도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어려운 미디어임에 틀림없다. 그런 점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 생산자들 스스로의 고민과 마을공동체미디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고민,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위한 자치단체의 고민이 한데 어울려져야 한다.

5. 나가며

최근 제주 농촌지역 마을공동체 복원과 관련하여 대안적 방안으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마을공동체미디어 발전 경로가 그러하듯이, 제주지역의 마을공동체 복원을 실현하기에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과 토대, 경험과 실천 등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생성과 생산과정, 이 과정에 투영된 가치들, 현재의 과제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분석했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자 심층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생성 및 생산과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 생성에는 원주민이 아닌 이주민이 중심이 됐고, 지극히 개인적인 ‘재미’와 ‘열정’, ‘보람’ 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미디어 활동에 열렬한 애정을 갖고 있었으며, 미디어 활동에 따른 결과물에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마을공동체미디어에 접근하고 참여하는 데는 완전한 개방체로서 존재하고 있었으며, 미디어 콘텐츠는 전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와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은 마을의 숨은 이야기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생산 과정의 특징으로는 수평적 소통이 이뤄지며, 공동회의라는 형식을 거치지 않음만 미디어 참여자 개인의 관심사와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참여자 스스로 마을에 대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자생적인 미디어 문화를 조성하고 있었으며, 공동체 소통의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었다. 또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자들은 마을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합리적 의사결정과 배려를 마을공동체미디어 생산 활동을 통해 배우고 있었다. 이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한 일방적 리드가 아니라 협력과 합의를 통한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가능성을 비추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마을 내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대다수 마을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자들이 생산과정에 적용하는 가치들을 살펴보았다. 참여자들은 마을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취재나 출연진 섭외를 위한 ‘말 걸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알리고,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자발적인 참여에 따른 ‘소통의 연결고리’와 ‘소통의 확산체’로서 기능주의적 면에서 소통의 활성화를 통한 마을공동체의 복원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었다. 과거에 마을공동체는 자연적이고 태생적으로 이뤄졌다면, 현재의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활성화하는 일은 자연적으로 이뤄지기 보다는 의도적이고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런 점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마을의 사회적, 문화적 차원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은 마을주민들이 공동체를 통해 마을의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의 공간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과제와 발전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터뷰 참여자들이 밝힌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위한 과제는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마을공동체미디어 공간 확보, 방송장비 부족과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위해 안정적 활동을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과 마을에서의 안착을 위한 환경 조성은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간과 기초 제작 장비를 보유하고, 마을주민들의 이야기를 생산해 낸다면 자연스레 안정화 단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마을공동체미디어 보조사업에 대한 간소화 및 지원 절차 개선이 요구된다. 누구나 어디서나 마을공동체미디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현실을 외면한 일률적인 자부담 전가가 이뤄져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제주지역에서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생산자의 미디어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자들은 마을공동체의 소통의 필요성을 느껴 미디어를 시작했고, 미디어를 소통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들은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복원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선택한 것이다. 마을공동체 복원의 핵심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이에 따른 연계망의 확장, 주민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이할만한 점은 제주지역의 공동체미디어는 원주민이 아닌 이주민 중심의 참여가 활발했다. 이주민들은 개인의 감성적 욕망이나 생활관계의 변화를 위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소속감을 갖기를 원했고, 그러한 맥락에서 공동체미디어 생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제주이주 붐에 따른 갑작스런 인구증가가 이뤄지고, 이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마을단위에서 지역민들의 소통의 연결과 확장 및 유대형성 등을 위한 역할과 기능을 마을공동체미디어가 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제주지역이 서울지역에 비해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지닌 지역성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어서 다소 차별화가 되고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국의 마을공동체미디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공유와 연대를 기반으로 생활공간에서의 지역 소식, 정보들을 다룬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었다. 이는 공동체미디어 생성과정이 특정한 지역 단위에서 소통과 연결망의 공간으로서의 존립 목적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콘텐츠 생산과정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성의 발견은 쉽지 않았다. 오히려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시행 초기여서 주민참여의 부족으로 다양한 콘텐츠 생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차후에 공동체미디어가 마을 단위에서 연결과 연대의 확장을 통해 활성화된다면 다양한 콘텐츠 생산의 가능성을 비추고 있다. 이에 향후에는 제주지역 공동체미디어에 특화된 콘텐츠를 찾아내어 발전시키고, 마을주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적 함의는 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지원임을 알 수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발전방안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마을안팎의 네트워크 강화, 마을공동체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및 공동 플랫폼 개발,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미디어지원 시설 확보, 점차 확장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연결 등을 꼽았다. 이러한 방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사업의 일원화된 제공을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다른 공공기관과 다양한 조직 간의 연계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제 초기시작 단계인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소통적 행위나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면, 우선 이 연구는 심층인터뷰에 의존함에 따라 광범위한 정보 수집의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4개 공동체미디어 12명의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생성과 생산과정, 발전방안을 연결시키는 심층적인 요인들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한정된 인터뷰만으로 제한된 내용들을 탐색해보는 데에 그쳤다. 물론 탐색적 연구는 단일지역에서의 연구 규모나 범위, 연구 아이디어와 확장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데에 의의가 있는 만큼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심층적인 분석 연구는 앞으로의 연구과제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단일지역을 넘어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지역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을 달리하는 각각의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서로 상이한 특성과 문화에 따라 지역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화될 것이다. 한 예로 공동체미디어가 활성화된 서울지역의 내부적 실천과 생산과정을 제주지역과 비교분석한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그리고 각 마을공동체미디어들의 실천과정에서의 고민들을 담아냈지만, 초기단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천착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시간적 간격을 두어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안정화되고 지역사회에 자리매김되었을 때 한층 더 구체적이고 농익은 고민과 평가 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강진숙·소유석 (2016). 공동체 라디오 동작FM의 다중참여와 실천사례 연구: 네그리와 하트, 비르노의 다중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0권 5호, 292-318.
- 강진숙·이은비 (2013). 공동체라디오 DJ의 미메시스적 실천과 유희성 연구: 창신동 라디오방송국 <딤>을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25권 2호, 37-66.
- 강진숙·이은비 (2014). '서울마을미디어'의 다중 실천과 문화정치적 의미에 대한 연구: 네그리와 하트의 '다중' 개념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5권 3호, 143-185.
- 김구 (2016). <스마트사회와 공동체>. 서울: 대영문화사.
- 김민영·최현 (2015). 제주도 이주의 현황과 전망. <탐라문화>, 50권, 40-79.
- 김우영 (2013). 은평구 마을공동체로 바라보는 주민참여사업. <공공사회연구>, 3권 2호, 5-35.
- 김은규·최성은 (2013). 정규방송 도입 이후 공동체 라디오 운영구조 및 정책에 대한 평가적 고찰: 전문가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3권 3호, 184-214.
- 김태영 (2012). 마을 공동체 복원의 고려요소. <건축>, 56권 6호, 14-19.
- 김희영 (2012). <미디어로 마을을 만나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역할 및 운용>. 미디어를 활용한 마을 이야기 만들기 사례집. 131-140.
- 김희영 (2014a). <마을미디어 현황과 과제>. 미디어엑트 개관 12주년 기념 라운드테이블 전국 마을미디어 팔도유람. 7-23.
- 김희영 (2014b). <마을과 사람을 잇는 마을미디어>. 국토연구원. 92-100.
- 문석진 (2013).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공공사회연구>, 3권 2호, 36-48.
- 박병춘 (2012). 지역공동체 성공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 지역공동체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0권 4호, 1-26.
- 박병춘·김석찬 (201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DB 정보 플랫폼 개발. <지역사회연구>, 20권 1호, 1-21.
- 박병춘·최현석 (2012). 지역공동체 실체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풀뿌리운동에 기반을 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0권 3호, 1-22.
- 박재영·강진구 (2016). 서울시 조선족 밀집지역과 거주 공간 확대에 대한 연구: 가리봉동-구로동-대림동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53권, 255-290.
- 박채은 (2006). <임파워먼트를 위한 소통: 대안미디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반명진·김영찬 (2016). 공동체 라디오와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대한 현장연구: 마포 FM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8호, 79-115.
- 변혜선 (2016). 마을공동체를 통한 행복한 충북 실현. <충북 포커스>, 123호, 1-18.
- 손동유·이경준 (2013).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기록학연구>, 35호, 161-206.

- 안진·채영길 (2015). 공동체 미디어 실천과 다문화 정체성의 재구성: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라디오 참여활동과 권능화. <한국방송학보>, 29권 6호, 94-136.
- 오완석 (2013). 마을공동체회복사업과 주민자치를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공공사회연구>, 3권 2호, 104-125.
- 이기형·황경아 (2016). SBS의 역할과 성취 그리고 명과 암을 맥락화하기: 텍스트 분석과 미디어 생산자 연구를 통해서 조명하기. <한국언론정보학보>, 75호, 83-144.
- 이동연 (2014). 마을미디어 현황과 과제. 미디어엑트 개관 12주년 기념 라운드테이블 <전국 마을미디어 팔도유람> (57-61쪽).
- 이명호 (2016). 공동체의 위기와 복원에 관한 탐색적 연구: 향촌공동체와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19권 1호, 87-115.
- 이재완 (2014).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민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인지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권 4호, 409-437.
- 이주훈 (2012). 미디어로 마을을 만나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역할 및 운용. <미디어를 활용한 마을 이야기 만들기 사례집> (114-125쪽).
- 이주훈 (2015). 서울시 마을미디어 정책현황. <제주지역 마을미디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자료집> (5-19쪽).
- 이희량 (2012). 미디어로 마을을 만나다: 공동체 미디어교육이 왜 마을을 향하는가?. <미디어를 활용한 마을 이야기 만들기 사례집> (126-130쪽).
- 이희환 (2016). 도시마을 공동체 복원의 가능성을 묻다. <인천학연구>, 25호, 283-293.
- 장시연·채영길 (2016). 공동체 미디어의 참여자 네트워크 특성과 의미 분석: 마포FM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권 5호, 720-731.
- 전대욱·박승규·최인수 (2012).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연구보고서 2012-10).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정의철 (2015). 이주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역량강화: 이주민 미디어와 이주민 미디어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9권 2호, 257-286.
- 제주특별자치도 (2014).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이주민 실태조사 및 정착지원 방안 연구. URL: <http://jeju.go.kr/group/part4/refer.htm?act=download&seq=802793&no=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16).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URL: http://www.council.jeju.kr/contents/index.php?mid=0607&job=detail&ebcf_id=2016_intra_com&eb_seq=85
- 채영길·김용찬·백영민·김예란·김유정 (2016). 서울시 마을공동체미디어와 공동체 공론장의 분화와 재구성. <커뮤니케이션 이론>, 16권 6호, 4-46.
- 최성은 (2010). <국가규제와 공공지원이 공동체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지만·황선영·김순은 (2016).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제도주의적 분석: B아파트 2단지 옥상 텃밭

- 가꾸기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권 2호, 29-54.
- 한선·이오현 (2008a). 한미 공동체 라디오 비교연구: 하위 공론장 역할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 <언론과 사회>, 16권 4호, 79-114.
- 한선·이오현 (2008b). 공동체 라디오와 자기 효능감: 미국 공동체 라디오 KOPN에 대한 민속지학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2권 5호, 275-294.
-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2016).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 변화를 읽다. URL: http://kostat.go.kr/office/hnro/rohn_nw/2/5/index.board?bmode=read&aSeq=354804
- 홍숙영 (2015). 공동체 라디오를 통한 다문화 인식개선과 스토리설계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권 5호, 98-107.
- 황경수 (2015). 사회적 자본이 제주지역 공동체 문화인 권당문화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권 3호, 1764-1772.
- 황석규 (2009).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정책의 과제와 미래. <탐라문화>, 35호, 371-404.
- Buckley, S., Duer, K., Mendel, T., & O'Siochru, S. (2008). *Broadcasting, voice and accountability: A public interest approach to policies, laws and regulations*.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Carpentier, N. (2007). The on-line community media database RadioSwap as a translocal tool to broaden the communicative rhizome. *Observatorio Journal*, 1, 1-26.
- Carpentier, N., Lie, R., & Servaes, J. (2003). Community media: Muting the democratic media discourse?. *Continuum: Journal of Media & Cultural Studies*, 17(1), 51-68.
- Halleck, D. (2002). *Hand-held visions: The impossible possibilities of community media*. New York, NY: Fordham University Press.
- Hillery, G. A. (1955). Definition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2), 111-123.
- Howley, K. (2005). *Community media: People, places,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brahim, Z. (2000). Tarzan doesn't live here any more: Musings on being donorsponsored in Africa.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3(2), 199-205.
- Jankowski, N. W. (2003). Community media research: A quest for theoretically grounded models. *Javnost-The Public*, 10(1), 5-14.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4), 6-23.
- McNair, B. (1998). *The sociology of journalism*. London, New York, Sydney, Auckland: Arnold.
- O'Connor, A. (1990). The miners' radio in Bolivia: A culture of resistance. *Journal of Communication*, 40(1), 102-110.
- Poplin, D. E. (1979). *Communities: A surve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 the concept of community*. New York, NY: Macmillan Publishing Co.
- Rodriguez, C. (2001). *Fissures in the mediascape: An international study of citizens' media*. Cresskill, NJ: Hampton Press.
- Servaes, J. (1999). *Communication for development: One world, multiple cultures*. Cresskill, NJ:

Hampton Press.

Steve, B. (2011). *Community media: A good practice handbook*. Paris, FR: UNESCO.

Tacchi, J., Slater, D., & Lewis, P. (2003). *Evaluating community-based media initiatives: An ethnographic action research approach*. Retrieved March 18, 2008, from <http://pcmlp.socleg.ox.ac.uk/it4d/thinkpieces/tacchi.pdf>

Wasko, J., & Mosco, V. (Eds) (1992). *Democratic communications in the information age*. Toronto & Norwood: Garamond Press & Ablex.

투고일자: 2016. 11. 29. 게재확정일자: 2017. 1. 23. 최종수정일자: 2017. 1. 25.

An Exploratory Study on the Media Experience of Village Community Media Producers

Focusing on the Production, Tasks and Policy Implications of Community Media in Jeju

Yong Bok Jung

Lecturer,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village community media in Jeju by looking at the value that its participants have experienced in the production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creation and production process of village community media, the specific value reflected in this process as well as how to activate and operate it sustainably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12 media participants in Jeju commun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ly, we were able to see that the migrants who are not the indigenous became the center of village community media creation in Jeju and they felt very personal 'fun', 'enthusiasm' and 'satisfaction'. It was also completely open to access and participate in village community media and its contents were filled with stories of everyday life of village residents and hidden stories of old people in the village that were not recorded. The characteristic of the production process of village community media was the horizontal communication and it reflected well the opinions of individual media participants even if it had a joint meeting.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values applied to the production process by village community media participants, they regarded the connection of communication by voluntary participation and restoration of communities through activation of communication in functionalism as an important value. Finall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hallenges and development plans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community media in Jeju, it was require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village residents, ensuring space for village community media, providing insufficient broadcasting equipment, and the budget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etc. It was once again confirmed that the provision of a support system for the stable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 is an urgent task for sustainable village community media.

KEYWORDS Community, Community Media, a Study on the Producers, Village Community Media